

유현 준혁 독서사랑

돈은 어떻게 벌까요?로 배우는 재미있는 금융교육

3회차

SHOP



2024.10. 20

열심히 배워봐요~!

오늘의 학습 목표

01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
아봅니다.

02



활동 : 나만의 가게 만들기

03



돈에대한 배경지식 확장

01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놀았어요!

활동 사진 모음

REC



진행 일정 : 2024.10.20

장소: 유현이네 집

참여인원 : 배유현, 송준혁 (유현모 ,준혁모)

유현 준혁이의 즐거운 독서금융교육

유현이네 가게



준혁이네 가게



유현 준혁이의 즐거운 독서금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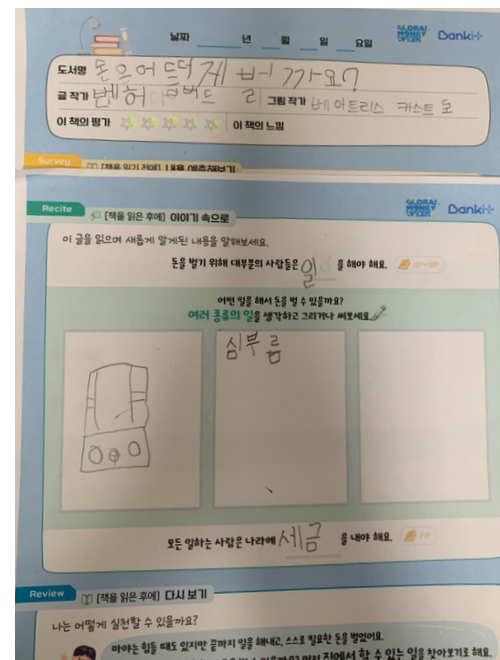
우리가 읽은 책과 활동교구들

책 01



돈은 어떻게 벌까요?

활동지 02



돈은 어떻게 벌까요?

BY SQ3R

활동교구 03



나만의 가게 만들기

배유현 : 베이글 가게

송중혁 : 장난감 가게

흥미로운 내용 SQ3R

1. 살펴보기

“제목은 **돈은 어떻게 벌까요?** 이예요. 표지를 보니 한 어린이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돈을 들고 있는거 보니, 세차의 대가로 돈을 번것 같아요~

2. 궁금한거 생각하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3. 책 읽어 보기

5. 다시보기

나는 **물건팔기, 서비스 제공하기** 등 중 어떤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4. 핵심문장 찾아보기

“마야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어요”

“**세금**은 모든 근로자가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예요”

책을 통하여 배운 멋진 것들



주인공 마야를 통해 배운 멋진 것들

1. 돈을 버는 일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2.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3. 세금, 용돈, 최저임금 등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재미있는 활동들

- 돈은 어떻게 벌까요? 책 읽기
- 나만의 가게 만들기 활동
유현 - 베이글 가게
준혁 - 장난감 가게



새롭게 배운 멋진 것들

1. 평소 궁금했던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 일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 세금, 최저임금 등 새로운 용어로 지식을 확장했습니다.

유현준혁 독서사랑의 이야기



유현이와 준혁이, 엄마들의 이야기

유현,준혁이의 이야기

유현이의 다짐

"나도 마야처럼 할머니가 말씀하신 레모네이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우리 집 앞에서 시원한 음료수랑 쿠키도 같이 팔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종이 오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게를 만들다 보니까 진짜 가게 주인이 된 것 같아서 신났어요! 베이글 그림을 오리면서 손이 아팠지만,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게 배치했더니, 친구들이 다 먹고 싶대요! 가게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코끼리 베이글 가게를 따라해봤어요. 다음에는 샌드위치 가게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배운 대로 더 꼼꼼하게 오리고, 메뉴도 더 많이 만들어볼 거예요. 제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보고 친구들이 맛있겠다고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준혁이의 다짐

"마야가 처음에는 창고가 너무 지저분해서 힘들었대요. 근데 포기 안하고 끝까지 한 거 정말 대단해요! 나도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마야처럼 끝까지 해볼래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종이로 만들어서 진열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로봇이랑 인형을 오려서 진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완성하고 나니까 진짜 장난감 가게 같았어요! 손님들이 뭐가 제일 재미있는 장난감인지 물어볼 때, 제가 직접 만든 장난감을 설명해주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가격표도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정말 사장님이 된것 같아 엄청 신났어요. 나 중에는 진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요!"

엄마의 이야기

유현 엄마 : 천우영

"요즘 아이들은 현금을 직접 만져볼 기회가 줄어들어서인지 돈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벌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레모네이드 가게 운영이나 강아지 산책, 정원 가꾸기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쉽게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작정 용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 같네요."

준혁엄마 : 최수경

"독후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해야 할 일과 하면 좋을 일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경계를 잘 설명해주었어요. 내 방 정리하기, 식사 후 정리하기, 학습준비물 챙기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이웃의 창고 정리나 정원 일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로 구분해 준 것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기본적인 책임감도 기르고,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용돈 교육을 할 때도 이런 구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현준혁 독서사랑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도벌수 있네요!
오늘 금융교육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이상, 3회차 활동 내역이었습니다.

